

아산재단, 579명에게 장학금 40억원 전달



2022년 아산재단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뒷줄 가운데)과 이사들이 대표로 장학증서를 받은 아산장학생 8명과 함께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의 2022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이 지난 2월 24일 서울아산병원에 위치한 아산생명과학연구원 1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설립이념에 따라 장학 사업을 펼쳐온 아산재단은 대학원생 66명, 대학생 513명 등 총 579명에게 장학금 40억 원을 전달했다.

의생명과학분야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의생명과 학분야 대학원 장학생’은 국내에서 46명, 해외에서 17명을 선발했으며 졸업 시까지 매년 2,000 ~ 4,000만 원, 올해 신설된 보건의료정책 분야 대학원 장학생 3명은 매년 1,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대학교 장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으며, 이 가운데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나래장학생’ 63명을 비롯해, 신체적 장애를 딛고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다숨장학생’ 15명,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소외된 이웃과 나누는 ‘재능나눔장학생’ 29명, ‘성적우수장학생’ 41명이 포함되었다.

나래장학생과 다숨장학생 78명에게는 등록금 이외에 학업보조비로 연 240만 원을 지원하여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인,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 국가의 안전을 위해 복

무하는 대원들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MIU(Men In Uniform) 자녀 장학생’ 230명과 산업체 장기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지역산학협력 장학생’ 100명도 선정됐다.

올해 신설된 북한이탈청소년 대학생 35명에게는 연 600만 원의 학업보조비를 지원한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복지라는 단어가 생소하던 시절, 아버님이 아산재단을 세우시며 첫 번째로 하신 사업이 장학사업이었다”라고 말하며 “우리나라가 어려운 여건에서 발전하게 된 것은 교육에 대한 열정 때문이다”고 전했다.

이어서 “자신의 일에 열정을 갖고 도전하는 청년들이 많은 것을 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아산재단은 1977년 재단을 설립하면서부터 꾸준히 장학 사업을 펼쳐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3만 6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총 821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매년 2월, 250여 명의 장학생과 학부모가 참석하는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해온 아산재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표 장학생 8명만 참석하는 행사로 축소 진행했다.  글 편집부